

‘우리시대 대표작가’ 황석영·은희경과 함께한 남도문학기행

소설속 그자리 ‘즐거운 만남’

며칠째 광주·전남에 여름비가 계속되던 13일 오후,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낙안읍성에 5대의 관광버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12~14일까지 전남 일대를 돌면서 진행되는 인터넷 서적 YES24 주최 ‘황석영·은희경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 캠프’단 200여명이 행사 이틀째 낙안읍성을 찾은 것이다. 황씨와 은씨는 네티즌 대상 설문조사에서 각각 ‘노벨상 후보’와 ‘차세대 우리작가’로 뽑혔다.

첫 날, 고창 선운사와 고인돌군(群)을 둘러보고 은씨와 ‘독자와의 대화’를 가졌던 일행들은 이날 오전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의 무대가 됐던 순천만 갈대밭을 살피며 소설 속 ‘안개가 머물던 도시’를 실감했다.

행사 이틀날 예정된 독자와의 대화를 위해 낙안읍성에서 합류한 황씨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한국 문학의 흥풍기”라며 “지금 한 단계 더 도약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인부터 중진까지 다양하게 작품을 쏟아내고 있는 우리 문학계가 지금처럼 활발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황씨는 옥살이를 하던 1990년대 신인 작가였던 은씨 등 민족문학작가회의 소속 문인 100여명이 찾아왔던 이야기로 은씨의 인연을 강조했다.

“감람에서 은희경씨 첫 소설 ‘새의 선물’을 봤는데,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손이 차가운 사람이 마음은



‘YES24’가 주최한 문학기행에 참가한 소설가 황석영(왼쪽), 은희경씨가 낙안읍성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독자 200여명 순천 갈대밭 거닐며 행복한 시간

‘장길산’ 무대 화순 운주사에서 ‘독자와의 대화’

따뜻하다는 옛 속담이 있다’는 내용의 염서를 보냈어요. 지금도 소설 속 장면들이 생각날 정도로 인상 깊게 읽었죠.”

은씨는 “너무 대선배라 황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선생님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거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현장에 있다는 사실이 존경스럽다”는 말로 답했다.

황씨는 구례에 문학촌을 설립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구례는 경기도 양평과 가평, 전북 진안 등과 함께 프랑스에서 영구 귀국한 뒤 정착하게 될 후보지 4곳 중 하나”라며 “후배인 출판사 사장이 구례 땅을 사농은 모양

인데 직접 방문한 결과 (너무 골짜기여서) 집 사람의 반대도 심할 뿐 아니라 접근성이 떨어져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황씨와 은씨는 낙안읍성을 떠나 황씨의 작품 ‘장길산’의 무대가 됐던 화순 운주사로 자리를 옮겨 독자와 시간을 보냈다.

독자 전병호(25·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씨는 “아름다운 전남의 자연을 접하고, 평소 동경하던 작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순천=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제간의 情·향토색 물씬

김행신 교수 정년기념전 ... 16~22일 대동갤러리

광주 조각계를 대표해온 김행신(65·전남대 예술대학) 교수가 정년 퇴임을 맞아 제자들과 기념전을 갖는다. 16~22일까지 대동갤러리.

김 교수는 지난 1976년 전남대학교 강단에 선 뒤 30여년 동안 제자들을 길러낸 조각계의 원로. 현재 광주에 총회장을 맡고 있는 최규철 교수와 김대길 전남대 교수를 비롯 정홍기 나주대 교수 등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 불모지나 다름 없는 광주 조각계를 살려왔다.

대표작으로는 88올림픽 광주기념탑, 해남 토막탑 등이 있다. 또 홍상 제작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였던 그는 김동리 선생상, 전남대학교 설립자 최상재 박사상 등을 제작했다.

1962년 서라벌예술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45년 휴을 만져온 그는 향토적 서정과 남도의 풍요로운 넉넉함이 느껴지는 작품을 추구해왔다. 가

습이나 문부 등 신체부위를 과장하는 작업 스타일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이기도 하다.

김 교수의 제자들로 구성된 전남조각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그는 ‘가족시리즈’, ‘귀부인’, ‘불심’, ‘모정’ 등 향토색 짙은 정감이 투영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100여명의 작가들은 김 교수가 전남대미술대학, 예술대학 재직시절 길러낸 제자들로, 스승의 정년을 기념하기 위해 도록제작과 전시회 경비를 십시일반 마련했다.

오는 31일 정년퇴임하는 김 교수는 “최근 미술이 예술성보다 상업적으로 치중하는 바람에 순수예술의 가치가 상실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정년을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아 작가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 062-222-0072.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김행신 작 ‘우주속의 모정’

제10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에 김진화씨

제10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상금 700만원) 수상자로 회화 설치작가 김진화(여·38·사진)씨가 선정됐다.

또 장려상(상금 각 200만원)은 서양화가 김중수(33), 조각 설치작가 정승(31), 영상 설치작가 진시영(36)씨 등 3명이 수상했다.

광주신세계미술제가 주최하는 광주신세계미술제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신이거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만을 대상으로 한 창작지원프로그램으로 단 순한 시상에서 머무는 공모전 형식을 탈피,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게 특징이다.

이번 미술제에는 총 99건의 전시기획안이 접수됐으

며 심사사 김진정(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심상용(동덕여대 교수)씨가 맡았다.

대상을 받은 김씨의 작품은 심사위원들로부터 “2차원적인 평면 회화를 기본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새로운 조형 실험이 눈에 띄고 재료를 다루는 솜씨와 이를 조형화하는 능력을 통해 일관성 있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씨는 호남대와 미국 프랫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광주와 뉴욕 등에서 7차례 전시회를 열었다.

수상작 전시회는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며 수상작가들은 신세계갤러리에서 2008년 개인별 초대전을 갖게 된다. 또 신세계갤러리의 지원으로 해외교류전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문의 062-360-1630.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정음성국제음악제 엠블럼 확정

25현·12현 가야금 색다른 무대

빛고을 무등가야금연주단, 15일 빛고을국악전수관

빛고을 무등가야금연주단(단장 심은 전남대 교수) 초청 연주회가 15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전수관이 진행하는 수오상설 초청공연으로 무대에 서는 가야금연주단은 정악합주 ‘도드리’, ‘뱃노래’ 중주, ‘사랑의 춤’, ‘황금산의 백도라지’, 김죽과 류 가야금 산조, 가야금 병창 ‘흥보가

중 ‘구만리~재비 노정기’ 등을 25현 가야금과 12현 가야금으로 들려준다.

지난 1992년 창단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빛고을 무등가야금연주단을 가진 바 있다.

장고 장단은 양신승씨가 맡았으며 플루티스트 이은지씨가 협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기독교미술인協 전시회

18일까지 조선대학교 미술관

광주기독교미술인협회(회장 박상호)의 다섯번째 전시회가 14~18일 까지 조선대학교 미술관에서 열린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참가자들은 서양화, 한국화, 판화, 공예,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참가자들은 기독교 복음과 신앙생활을 주

제로 한 작품들을 전시하며 일부 작가들은 자신을 고유의 작품 세계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참여작가는 방철호·김양근·김강수·김소남·황수부·김영태·서봉환·천명인·손봉채·박경희·한희원씨 등 56명이다.

이번 전시가 끝나면 교도소와 소년



김양근 작 ‘지상천국’

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순회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문의 062-230-7832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movies

이제야 웃을 수 있어! Happy Time

영화야니

우리들이 상상한 인생 아니야니! 만남의 광장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 런던악국사거리 ☞ 1544-0600

1관 디워 (디지털/12세)	최고급관
2관 화려한 휴가 (12세)	
3관 디워 (12세)/리턴/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니 (18세)	
4관 기담 (15세)	
5관 디워 (디지털/12세)/만남의 광장 (12세)	
6관 디워/판타스틱 4/스타더스트 (12세)	
7관 판타스틱 4/실버서퍼의 위험 (12세)	
8관 리턴 (18세)	
9관 화려한 휴가 (12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엔터 시네마

총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판타스틱 4 (12세)	
2관 기담 (15세)/다이하드 4 (12세)	
3관 리턴 (18세)	
4관 에반올마이터 (전제)/트랜스 포머 (12세)	
5관 디워 (12세)	
6관 서핑업 (전제)/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12세)	
7관 화려한휴가 (12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욕실·욕외 주차장 300대
- 빛고을 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황토사랑 영화사랑 • 이메일: www.joycbs.com /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2면)

1관 리턴 (18세)/스타더스트 (12세)	
2관 서핑업 (전제) (전제)	
3관 디워 (12세)/만남의광장 (12세)	
4관 디워 (12세)	
5관 조디악 (15세)/리퍼마이어 (전제)/해피엔미백이 (전제)	
6관 화려한 휴가 (12세)	
7관 화려한 휴가 (12세)/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니 (18세)	
8관 기담 (15세)/다이하드 4.0 (12세)	
9관 판타스틱 4 (12세)/실버서퍼의 위험 (12세)	
10관 화려한 휴가 (12세)	

호남 최대 주차장 • 매입심이 상영합니다 1588-7941

상무점: 상무병원 옆 빈번 (1번 or 2번) → 1면

해남점: 해남점 (107면) 정리리 상영중

즐거움이 가득 • www.mct12.co.kr / 1588-9101

무등극장

총장로 17가 ☞ 232-9106

1관 리턴 (18세)	
2관 리턴 (18세)/만남의광장 (12세)/해피엔미백이 (전제)	
3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니 (18세)/판타스틱 4 (12세)	
4관 스타더스트 (12세)/화려한 휴가 (12세)	
5관 디워 (12세)	
6관 디워 (12세)	
7관 1408 (15세)/판타스틱 4/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12세)	
8관 서핑업 (전제)/조디악 (15세)	
9관 화려한 휴가 (12세)	

-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타임스퀘어 회원권을 위한 전용주차 공간
-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 전화예약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세로로 기록 •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제일 시네마

총장로 3가 ☞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화려한 휴가 (12세)	
2관 화려한 휴가 (12세)	
3관 리턴 (18세)	
4관 디워 (12세)	
5관 디워/다이하드 4.0 (12세)	
6관 판타스틱 4/실버서퍼의 위험 (12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